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과의 관계 분석*

이금재** · 허영주***

(e-mail: keumjae@nsu.ac.kr · youngju@nsu.ac.kr)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preferences for major and teaching prof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Japanese.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Japanese generally tend to show high preferences for their own major and high expectations for teaching profession. I could see that the higher preferences for major are, the higher expectations for teaching are shown.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the fact that there are teacher education classes offered in Japanese Department needs to be informed actively through high school PR activities. I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evaluate major preferences and the degree to which students hope to become a teacher, in screening documents submitted and interviewing students.

key words : Students who major in Japanese(일본어 전공 학생), Major preferences (전공 선호도), Students who take a teacher education course(교직이수 학생), Expectations for teaching profession(교직 기대감)

* 이 논문은 2013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일본 근현대문학

***남서울대학교 교수, 교육학

I. 서론

오늘날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국가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선진 국가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에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교육의 성과는 유능한 교사의 자질에 달려 있으며, 우수한 교사가 교육을 담당할 때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투철한 교직관 및 사명감은 물론, 전문화되고 성숙한 인간이 될 것이 요구된다(이재영, 1992: 1).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직전 교육은 사범대학, 교육대학, 일반 학과,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교직이수를 일차적인 목적에 두고 있지만, 일반 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주로 2학년 또는 3학년 때 교직을 선택하고 있다. 그동안 교직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일차적 목적을 갖고 교직을 이수하는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일반 학과의 교직 이수학생에 대한 연구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원의 교직 이수자에 대한 교직의 적성과 능력, 흥미, 만족도 등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일반 학과의 교직 이수자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 학과의 교직 이수자도 교사의 전문성과 사명의식의 중요성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대학 교직이수자들의 경우에는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교직이수를 결정한 것이어서 일반대학 교직이수자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 교직이수자들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일반대학 교직이수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이고, 전공 선호도에 따라서 교직 기대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일반 학과 학생들 중에서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일본어 교사의 선발인원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교직 기대감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어 전공 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전공의 교직 선호도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에 대한 배경

1. 전공 선호도의 의미와 형성요인

가. 전공 선호도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이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형성하고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적과 석차에 집착하다보니 진로 교육이나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을 하지 못한 채 직업관의 미확립,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지식과 진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갖고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적응기간을 갖게 되고,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자신의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회의와 방황을 겪기도 한다. 더욱이 학생들은 전공을 기반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되면 동일 전공에 대한 직업선호도도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전공 선호도의 형성요인

전공 선호도는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공 선택 동기와 전공만족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전공 선택은 흥미나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등의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 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행위를 의미한다(이건남, 정철영, 2009). 여기서 대학 전공에 대한 정보는 객관적으로 전공에 대한 전망 인식, 특정한 학교의 특정학과가 갖는 사회적 위상 또는 학교 내에서의 인지도 등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재학 중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출 분야가 개인의 특성과 잘 부합하는가를 파악하는 행위에서 선택 동기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전공 선택 동기는 전공을 고르는 행위의 원인이 흥미와 적성, 전공을 통한 자기개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공의 인기나 취업전망에 대한 예상 등을 포함한다.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학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습에 대한 흥미상실로

인한 성적불량, 학교에서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외감 유발,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불안, 신경증, 정신병 등 심리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장대운 외, 1986).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결정한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가에 대한 수준과 개인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평가 정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학교의 사회적 인식과 명성이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가 더 높다.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로서, 자신이 현재 소속된 전공이 자신의 생애 이상이나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전공만족도는 높다(하혜숙, 2000). 결국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속한 전공 안에서 개인적 특성과 전공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이 입학하기 희망했던 대학을 선택한 경우에는 학교와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대학에서의 학업생활 등 충실히 수행하게 되어 학업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신의 전공이 적성 및 흥미와 일치하는 것이 대학생활 동안 전공만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우선화, 2012). 결국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입학한 경우에는 전공에 만족을 하게 되면 전공 선호도도 높아지는 것이다.

2. 교직의 특징과 교직 기대감

가. 교직의 특징

직업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교직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직업으로서 다양한 인간성을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직은 일반 직업에 비해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자기계발을 도모하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다. (권상혁 외, 1996를 인용한 서재복 외, 2011: 284-286). 하지만 교직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문직이라는 점이다.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특징을 전문직의 기준에 의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직에 입직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교육을 직전교육이라고 하는데, 역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맡은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사가 된 이후에도 현직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

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면 자격증이나 시험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는 인증을 받게 되는데, 사범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다. 전문직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전문성을 갖추고서 자율성을 갖고 고객(client)에게 봉사를 한다는 것이다. 자율성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불필요한 외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다(주삼환 외, 2015: 78). 이때 자율성은 자신을 위한 자율성이 아닌 반드시 고객을 위한 자율성, 즉 학생을 위한 자율성이어야 한다. 전문직의 특징으로 이러한 자율성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다짐으로 지침이나 강령을 정해서 이를 준수하게 되는데, 교직도 사도강령이나 사도헌장 등에서 교사로서의 다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은 자율성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직 단체를 구성하는데, 교직도 교직단체를 결성하고 있다.

교직을 담당하는 ‘교사’란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성장과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설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교사에 대한 설명들은 ‘가르치고, 지도하며, 이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교직은 학생들과의 생활이 즐겁고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으며, 자기적성이 맞아야 한다(남궁미경, 2011: 9). 교직의 매력은 인간 상호작용의 접촉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에 나아갈수록 교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나. 교직 기대감의 형성요인

교직 기대감은 교사직을 전문직으로 간주하여 교직이라는 특수한 직무여건 및 환경 내에서의 직무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이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특성, 전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서 교사들이 교직과 교직경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고, 교직 환경에 대해 갖는 개인적 특성이 심리적인 긍정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직 기대감은 교직에 대한 낙관적 전망, 직업안정성, 교직관, 교직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형성된다.

낙관적 전망은 교직이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고, 발전 가능성이 커서 교직이 수가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이다. 직업안정성은 자신이 교사가 되면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복지문제가 잘 되어 있고, 교사가 되도록 타인에게도 적극 권유할 수 있는 마음이다. 교직관은 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학생들 지도하겠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이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부모가 기대하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추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은 교사가 된다면 전문직으로서 학급관리나 학생 활동계획을 세워서 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3.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과의 관계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선행연구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즉 주요 연구들은 교직의 선택 동기와 교직 수행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수정(2008)의 연구를 보면 직업 선택 동기와 전문성 인식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장유수(2010)의 연구에서도 교직 선택 동기와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남근·양윤종(1998)의 연구에서도 교직 선택 요인과 직무수행 간에는 상호관계가 있었는데, 교직 선택요인이 능동적인 경우에는 직무수행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선택 동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김주영(2010)의 연구를 보면, 능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상실의 영역에서 소진을 경험하지 않았다. 반면, 물질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개인적 성취감 상실의 영역에서만 소진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수동적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한 교사는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상실의 영역에서 모두 소진을 경험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또한 남궁미경(2011: 46-47)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 중에서 능동적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동적 동기, 물질적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능동적 동기가 높은 교사는 교직몰입에 긍정적이고, 교사 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결국 교사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능동적인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직 선택의 동기와 교직 직무수행 간에도 상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교직에 대한 기대감이나 교직의 직무수행과 몰입, 사명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교직 선택 동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대학생활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가능하다. 이는 역으로 대학생들의 학과 적응 및 전공 만족도를 높여야 유능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임진형 외, 2014: 91). 전공 선호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활 자체가 전공 영역별로 되어 있고, 전공은 대체로 장래의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공 선택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앞으로의 직업선택은 물론 교직의 선택과 기대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Ⅲ.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 측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일본어 전공에 대한 선호도와 교직에 대한 기대감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남 지역에 소재한 N대학교의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학생들의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설문지는 총 14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132부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설문지에 참여한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 도	퍼센트
성별	남	57	42.2
	여	75	55.6
학년	1학년	47	34.8
	2학년	39	28.9
	3학년	46	34.1
교직희망여부*	교직이수 희망자	36	26.6
	교직 무관심자	94	69.6
부모전공지지**	긍정	69	53.1
	보통	51	39.2
	부정	10	7.7

* 교직이수 희망자는 교직이수자, 교직이수예정자, 교직이수 희망자를 의미하고, 교직 무관심자는 교직이수를 고려하지 않는 학생임.

** 부모전공지지에서 5점 척도 중에서 긍정은 ‘매우 지지한다’와 ‘대체로 지지한다’, 보통은 ‘보통이다’, 부정은 ‘대체로 지지하지 않는다’와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임.

2. 측정 도구

가. 전공 선호도 측정도구

전공 선호도 질문지는 조황희 외(200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상례(2005)가 만든 질문지와 남궁미경(2011)이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전공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공에 대한 선택 동기와 전공 만족도로 이루어졌고, 각각 7개의 문항씩 총 14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로 구분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질문의 예를 보면, 교직 선택 동기는 “내가 전공을 선택한 동기는 진로나 취업 전망이 좋기 때문이다”라는 질문이고, 전공 만족도는 “나는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기

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인 Cronbach's α 를 보면 전공 선택 동기 .633, 전공 기대감 .906 이었으며, 전체인 전공 선호도는 .913으로 나타났다.

나. 교직 선호도 측정 도구

일본어 전공을 하는 학 학생들의 교직 기대감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는 문헌 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에서 김상례(2005)가 만든 질문지와 양명희외(2010)의 질문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질문지의 문항 선정은 교육을 전공하는 교수 4명과 함께 논의하여 총 24개 문항 중에서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을 관점에서 관련성이 떨어지는 6문항은 제외하고 18문항만을 선별하여 <표 2>와 같이 사용하였다. 교직 기대감은 낙관적 전망, 직업안정성, 교직원, 직무수행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질문의 예를 보면, 낙관적 전망은 “나는 교직이수는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이고, 직업안정성은 “교사의 사회적 신분은 괜찮은 편이다”라는 질문이고, 교직관은 “나는 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자신이 있다”라는 질문이고, 직무수행능력은 “나는 교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자신이 있다”라는 질문이다. 교직 선호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를 보면 낙관적 전망 .693, 직업안정성 .726, 교직원 .887, 직무수행능력 .288이고, 전체는 .923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설문지 내용 및 문항수

변인명	하위변인	점수	문항	Cronbach's α
전공선호도	전공선택 동기	7문항 28점	1,2,3,4,5,6,7	.633
	전공기대감	7문항 28점	8,9,10,11,12,13,14	.906
	계	14문항 56점		.913
교직기대감	낙관적 전망	3문항 12점	1,2,3	.693
	직업안정성	5문항 20점	4,5,6,14,16	.726
	교직원	6문항 24점	7,8,9,10,11,13	.887
	직무수행능력	4문항 16점	12, 15, 17, 18	.788
	계	18문항 72점		.923

3. 자료 분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고자 다음과 같은 통계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공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학년별, 교직희망 여부, 부모의 전공 지지 정도, 부모의 교직 지지 정도, 과거에 교직을 생각한 경험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교직 기대감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학생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 학년별, 교직희망 여부, 부모의 전공지지 정도, 부모의 교직지지 정도, 과거에 교직을 생각한 경험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일본어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가 교직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일원변량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 분석

1. 전공 선호도에 대한 분석

가. 전공 선호도의 일반적 경향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공 선택, 전공 기대, 전공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일본어 전공 학생의 전공 선호도

	N	전체 평균		4점 척도 기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공선택	131	16.49	2.75	2.35	.39
전공만족	131	20.36	4.28	2.90	.61
계	130	36.83	6.40	2.63	.45

일본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인식을 4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

면, 전공 선호도는 2.63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전공 선택이 2.35, 전공 만족이 2.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 선호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특히 전공에 대한 만족이 다소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전공 선호도의 차이 분석

일본어 전공하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전공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전공 선호도의 차이 분석

구분	N	전공 선택			전공 기대			전공 선호도			
		M	SD	F	M	SD	F	M	SD	F	
성별	남	57	16.84	2.58	1.59	21.15	3.99	3.50	38.00	5.97	3.39
	여	74	16.22	2.86		19.75	4.42		35.93	6.61	
학년	1	47	16.12	2.24	5.46**	19.63	4.55	3.01	35.76	6.15	4.75*
	2	39	17.66	3.13		21.74	3.91		39.41	6.64	
	3,4	45	15.86	2.63		19.93	4.12		35.71	5.91	
교직 구분	희망 자	36	17.58	2.70	9.23**	22.08	3.84	8.30**	39.71	5.78	11.01**
	무관 심자	93	16.00	2.63		19.69	4.31		35.64	6.32	
부모 전공 지지	긍정	69	17.18	2.82	9.64**	21.60	3.91	8.57***	38.77	6.25	10.85**
	보통	51	16.03	2.15		19.37	3.86		35.41	5.04	
	부정	10	13.60	2.67		16.80	5.90		30.40	8.16	

* p<.05 ** p<.01 *** p<.001

학년에 따라서 전공 선호도를 보면, 2학년이 39.41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학년 35.76, 3학년 35.71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변인인 전공 선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우선 전공 선택은 2학년이 17.6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학년 16.12, 3,4학년 15.8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공 선호도가 2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의미있게 재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Braskamp et al.(1979)과 그 외 선행연구(송유진, 1995; 황치석, 2005; 김창호, 2008; 최상권, 2012)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인 성별·전공별·성적에 따라 학과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반면에 학년과 성별에 따라 전공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재승, 2002; 이지현, 2005). 선행연구를 보면, 전공에 따라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교직희망 여부에 따라서 전공 선호도를 보면, 교직희망자는 39.71인 반면 교직 무관심자는 35.64로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변인인 전공 선택과 전공기대에서도 교직희망자가 교직무관심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부모의 전공에 대한 지지도에 따른 전공 선호도를 보면, 부모가 전공에 대해서 지지도가 높은 긍정인 경우 38.77로 가장 높은 반면에 지지도가 낮은 부정인 경우는 30.40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변인인 전공 선택과 전공 기대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높은 긍정인 경우가 부모의 지지가 낮은 부정인 경우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국 분석결과를 통해서 교직희망 하는 경우나 부모의 전공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경우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교직 기대감에 대한 분석

가. 교직 기대감의 일반적인 경향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보기 위해서 교직 낙관전망, 직업안정성, 교직원, 교직 직무수행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일본어 전공 학생의 교직 기대감

	N	전체 평균		4점 척도 기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직 낙관 전망	129	8.58	1.68	2.86	.56
교직 직무 만족	126	15.28	2.65	3.05	.53
교직원	129	16.41	3.94	2.73	.65
교직 직무 수행	128	11.15	2.31	2.78	.57
교직 기대감	125	51.56	8.46	2.86	.47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인식을 4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면 교직 기대감은 2.86으로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하위변인을 보면, 교직에 대한 직업안정성 3.05, 낙관적인 전망 2.86, 교직직무수행 2.78, 교직원

2.73 순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를 기준으로 볼 때, 교직 기대감은 대체로 높은 편이며, 특히 직업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직 기대감의 차이 분석

일본어 전공하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교직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별 및 학년, 부모의 교직에 대한 지지 여부에 따른 교직 기대감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직희망 여부에 따라서 교직 기대감을 보면, 교직희망자는 56.61인 반면 교직무관심자는 49.85로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변인인 교직낙관, 교직직무, 교직관, 교직 직무수행에서도 교직희망자가 교직무관심자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결국 분석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교직에 대한 희망이 높은 학생들이 교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6>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교직 기대감의 차이 분석

구분		N	교직낙관		교직직무		교직관		교직 직무수행		교직 기대감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성별	남	57	8.64 (2.01)	1.29	15.46 (2.38)	.45	16.96 (4.07)	2.02	11.57 (2.52)	3.24	53.05 (9.15)	3.11
	여	72	8.54 (1.38)		15.14 (2.86)		15.97 (3.81)		10.83 (2.10)		50.38 (7.74)	
학년	1	47	8.85 (1.48)	1.04	15.57 (2.96)	1.07	17.04 (3.56)	1.04	11.38 (2.08)	1.39	52.85 (7.85)	.87
	2	36	8.55 (1.94)		15.50 (2.40)		15.83 (4.34)		10.60 (2.75)		50.81 (9.10)	
	3,4	46	8.34 (1.64)		14.82 (2.47)		16.21 (3.98)		11.34 (2.16)		50.75 (8.61)	
교직 구분	희망자	36	9.13 (1.74)	6.31*	16.02 (2.16)	4.04*	18.22 (4.02)	11.00**	12.05 (2.38)	7.57*	56.11 (8.17)	14.81**
	무관심자	91	8.32 (1.59)		14.96 (2.77)		15.75 (3.67)		10.84 (2.16)		49.85 (8.03)	
부모 교직 지지	긍정	54	8.81 (1.68)	1.59	15.90 (3.03)	2.33	16.77 (4.11)	.82	11.33 (2.21)	1.75	53.15 (7.82)	2.33
	보통	55	8.54 (1.63)		14.96 (2.03)		16.40 (3.74)		11.30 (2.25)		51.21 (8.11)	
	부정	18	8.00 (1.87)		14.64 (3.01)		15.38 (4.23)		10.22 (2.75)		48.17 (10.81)	

* p<.05 ** p<.01 *** p<.001

3. 전공 선호도가 교직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에 대한 상관관계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공 선호도의 하위요인인 전공 기대와 전공 선택은 상관관계가 .631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직 기대감의 하위요인인 낙관전망, 직업안정성, 교직원, 직무수행은 각각 .535, .436, .789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은 .187로 미약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생의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과의 상관관계

구분	전공 기대	전공 선택	전공 만족	낙관 전망	직업안정성	교직원	직무수행	교직 기대
전공기대	1							
전공선택	.631**	1						
전공선호	.942**	.854**	1					
낙관전망	.127	.036	.098	1				
직업안정성	.278**	.224*	.282*	.535**	1			
교 직 관	.060	-.040	.031	.565**	.436**	1		
직무수행	.062	-.070	.012	.517**	.368**	.789**	1	
교직기대	.196*	.118	.187*	.732**	.716**	.904**	.827**	1

* p<.05 ** p<.01 *** p<.001

나. 전공 선호도에 따른 교직 기대감의 정도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에 따른 교직 기대감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공 선호도 점수에 따라서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세 집단의 구분은 점수의 정상분포 곡선 상에서 상위 33%를 '높음', 하위 33%를 '낮음', 중간을 '보통'으로 하였다. 전공 선호도에 따른 교직 기대감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공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은 교직 기대감이 53.42이고 낮은 학생들은 48.63으로 나타나서, 전공 선호도가 높으면 교직 기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공 선호도에 따라 교직 기대감의 하위요인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교직원과 직무수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은 낙관전망이 8.90이고 낮은 학생들은 8.04로 나타나서, 전공 선호도가 높으면 낙관전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공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은 직업안정성이 16.09이고 낮은 학생들은 14.36으로 나타나서, 전공 선호도가 높으면 직업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전공 선호도에 따른 교직 기대감의 차이 검증

		N	평균	표준편차	F
낙관적 전망	낮음	42	8.04	1.60	3.19*
	중간	41	8.73	1.48	
	높음	44	8.90	1.85	
	합계	127	8.56	1.68	
직업안정성	낮음	41	14.36	3.12	4.66*
	중간	41	15.24	1.81	
	높음	42	16.09	2.63	
	합계	124	15.24	2.65	
교직원	낮음	42	15.54	3.71	1.55
	중간	41	16.92	3.34	
	높음	44	16.75	4.50	
	합계	127	16.40	3.91	
직무수행능력	낮음	42	10.69	1.96	1.37
	중간	40	11.52	2.16	
	높음	44	11.25	2.75	
	합계	126	11.15	2.33	
교직 기대감	낮음	41	48.63	7.67	3.80*
	중간	40	52.37	7.54	
	높음	42	53.42	9.47	
	합계	123	51.48	8.47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대학의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이고, 전공 선호도에 따라서 교직 기대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들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는 4점 척도로 2.63이고, 이중에서 전공 선택이 2.35, 전공 기대가 2.90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을 희망 하는 경우나 부모의 전공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경우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편이다. 교직 기대감은 4점 척도를 기준으로 2.86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며 특히 직업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다. 또한, 본인이 교직에 대한 희망이 높은 학생들이 교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본어 전공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와 교직 기대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낮은 상관 정도를 보였다. 하지만 전공 선호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직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전공 선호도가 높으면 교직 기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공 선호도에 따라 교직 기대감의 하위요인들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교직관과 직무수행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공 선호도가 높으면 낙관적 전망과 직업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어를 선택하는 동기에 비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므로, 전공 만족도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전공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비록 중등교원 채용시험에서 일본 교사를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적지만 아직도 일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교직 기대감이 높다는 점에서 일본어 교직이수에 대한 안내와 지도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공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이 교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으로 교직예정자나 교직 확정자를 선발할 때, 전공 선호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도 교직이수 학생 선발의 타당성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므로 교직이수 학생 선발 기준으로 전공 선호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타당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상례(2005) 『특수교육전공 학부학생들의 교직에 대한 선호도 및 기대감』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36.
- 김승언(2002) 『유아교육기관의 교직 선택동기와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승(2002) 『체육계열 학생들의 전공유형과 전공만족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2010)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선택 동기 및 교직관과 소진경험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호(2008) 「경호학 전공만족도와 진로의식 조사」 『한국경호경비학』 17(1), 한국경호경비학회, 91-110.
- 남궁미경(2011) 『유아교사의 교직 선택 동기가 교직 몰입 및 교사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46-47.
- 류인자(1999) 『청소년의 직업관과 직업 선호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재복 외(2012) 『신교육학 개론』 태영출판사, 284-286.
- 송유진(1995) 『무용학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선화(2012) 『진로결정상태 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건남·정철영(2009) 「고등학생의 대학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1), 한국농업교육학회, 87-110.
- 이수정(2008) 『보육교사의 직업선택 동기, 전문성 인식 및 역할수행에 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영(1992) 『초등교사의 교직전문성 인식수준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 이지현(2005)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전공별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언(2006) 「이공계 대학 전공적합도 진단 도구 개발과 타당화」 『진로교육연구』 19(3), 한국진로교육학회, 1-21.
- 임진형·김소림·임주현·정소영(2014)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자기효능, 전공만족도간의 관계」 『발도로프교육연구』 6(1), 89-106.
- 장대운·박진현·나동진·이영식(1986) 「전공적성 불일치대학생의 전공학과 적응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4, 1109-1154.
- 장유수(2010) 『초등교사의 교직선택 동기와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남근 · 양윤중(1998) 「교원양성배경 · 교직 선택 동기와 직무수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4(2), 1-16.
- 조경자 · 이현숙(2005)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유아교사직에 대한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289-312.
- 조황희 외(2002) 「학기술분야 졸업생의 취업 및 산업별 전공-직종 구조분석」 『정책연구』 2002-16.
- 주삼환 외(2015)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5판』 학지사.
- 최상권(2012) 『경호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관과 전공선택 동기 및 전공만족도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혜숙(2000) 『대학생의 학과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치석(2005) 「성인학위학습자의 만족도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학점은행제 성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 · HRD연구』 95-112.
- Braskamp, L. A., Wise, S. L., & Hengstler, D. D.(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494-498.

투 고 일 : 2015. 8. 31
심 사 일 : 2015. 9. 12
게재확정일 : 2015.10. 3